

시 집

마음에 그리 는 동그라미

최길록 저



연변인민출판사

동시집

마을에 그리는

동그라미

최길록

연변인민출판사

责任编辑：李恩姬

责任校对：南今月

技术设计：张学峰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画在心中的圆圈：朝鲜文 / 崔吉录著. —延吉：延
边人民出版社，2009.10

ISBN 978-7-5449-0724-8

I. 画… II. 崔… III. 儿童文学—诗歌—作品集—中
国—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IV. I287.2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9) 第190029号

画在心中的圆圈

出版：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延边新华印刷有限公司

发行：延边人民出版社

开本：880×1230 1/32 印张：4.75 字数：100千字

标准书号：ISBN 978-7-5449-0724-8 （民文）

版次：2009年10月第1版 2009年10月第1次印刷

印数：1-500册 定价：12.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影响阅读，请与印刷厂联系调换。

동그란 세상, 고운 마음

—머리글을 대신하여

최문섭

아동문학분야에서 중견작가의 한분으로 활약하고있는 최길록선생님은 최근 예쁜 장정으로 된 첫 동시집 《마음에 그리는 동그라미》를 들고 나와 어린이들에게 선물하였다.

최길록선생님은 1994년에 수필 “선생님의 자세”를 지상에 발표하면서부터 문단생활을 시작하였다. 초기에 그는 주로 어린이들과 교원들의 학교생활을 반영한 수필작품을 쓰면서 또한 동시작품도 심심찮게 발표하였다. 학교생활속에서 창작소재를 잘 잡는 그는 “기다려지는 마음”, “어처구니없는 소원”, “빨간색 털실장갑” 등 무게있는 수필작품을 발표하여 10여차의 수필문학상을 수상하였는가 하면 또한 “꽃밭”, “그네터” 등 동시작품으로 백두아동문학상 등을 받기도 하였다.

마음에 그리는 동그라미

이외에도 그는 수십년간 교원생활에서 학생들의 글짓기지도로 꾸준히 한 보람으로 그가 지도한 학생들은 주급이상의 각종 글짓기백일장에서 대상, 금상, 은상 등을 따내 그도 30여차의 “작문지도상”을 받는 영광을 지니기도 하였다. 실로 그는 꽃봉오리 피어나는 교정에서 신조하고 우수한 원예사로 되기에 손색이 없을 뿐만아니라 또한 아동문학화원에서 부지런한 꿀벌이 되어 생활실천속에서 달디단 작품의 소재를 부단히 발굴하여 깊이 사색하고 다듬으며 섬없이 아동문학작품을 써내었다.

이번에 최길록선생님은 장기간의 생활실천속에서 짬짬이 써두었던 150여수의 동시작품가운데서 77수를 선정하여 동시집 《마음에 그리는 동그라미》를 펴내었다. 아이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주로 반영한 “사랑스런 교실친구들”, 단란하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그린 “아기자기 가족사랑”, 고향에 대한 다감한 사랑을 노래한 “꽃향기, 풀향기”, 신비한 하늘나라를 찬미한 “하늘나라 친구들”, 아름다운 자연과 주위세계에 대한 환상을 보여준 “알쏭달쏭, 싱송송” 등 다섯부분으로 엮어진 동시집은 작자가 어린이생활에 대한 폭넓은 관찰을 통해 얻은 남다른 감수가 잘 안겨오며 샘물처럼 티없이

맑고 깨끗한 동심세계에 대한 끈질긴 탐구가
엿보이고 그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나
름대로의 표현수법으로 동시의 꿈밭을 헤쳐온
그만의 소박한 창작자세를 잘 보여준다.

그의 동시작품가운데서 “가을 줏는 아이”,
“눈싸움”, “마음에 그리는 동그라미”, “노을”,
“분수못에 내린 무지개”, “글자들의 꽃방석” 등
은 비교적 잘된 동시라고 볼수 있다.

하얀 꽃뭉치야
동그란 눈덩이는

꽃뭉치에 맞으면
애들은 좋아서
캐드득거리지

퐁퐁 뽀뽀하며
하아얀 웃음
한바탕 쏟아내지

동시 “눈싸움”의 전문이다. 3련 7행으로
엮어진 짙막한 시에서 시인은 아이들이 겨울의
하얀 눈세계에서 눈을 뭉쳐 눈싸움을 벌리는
장면을 보는듯이 생동하게 그리었다. 첫시작에

마음에 그리는 동그라미

서 눈덩이를 “하얀 꽃뭉치”라고 하였다. 상징이 새롭다. 싸워서 즐거운것이 눈싸움이다. 아이들이 “꽃뭉치”에 맞으면 좋아서 캐드득거린다고 했다. “퐁퐁 뽀뽀하며/ 하얀 웃음/ 한바탕 쏟아내지”라고 끝연을 맺었다. 하얀 눈세계에서 하얀 꽃뭉치에 맞으면 하얀 웃음 쏟아내는 천사 같은 어린이들의 하얀 동심세계를 꺾진하게 잘 그려냈다. 남이 하던 소리가 아닌 자기만의 발견으로 새로운 이미지 창출이 돋보인다. 본 시집에서 수작으로 꼽을만한 작품으로 보아진다.

내 마음에
동그라미 그려요
내 가족의 보금자리만큼

내 마음에
동그라미 그려요
친구들이 모두모두 들어갈만큼

내 마음에 동그라미 그려요
지구촌아이들 다 앓을만큼

내 마음에

그리는 동그라미

자꾸자꾸 커지는 동그라미

“마음에 그리는 동그라미”도 훌륭한 작품이다. 화자는 내 마음에 동그라미를 그린다고 한다. 1련에서는 “내 가족의 보금자리만큼”, 2련에서는 “친구들이 모두모두 들어갈만큼”, 3련에서는 “지구촌아이들 다 앉을만큼”, 마지막련에서는 “내 마음에/ 그리는 동그라미/ 자꾸자꾸 커지는 동그라미”라고 마무리지었다. 마음의 동그라미가 점층적으로 커지면서 가족의 보금자리에서 지구촌 보금자리로 확대된다. 그래도 자꾸자꾸 동그라미는 커진다. “동그라미”는 한없이 달콤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차넘치는 하나의 동그란 세상이다. 그것은 허위와 거짓이 없이 깨끗하고 청순하고 말쑥한 동심세계이다. 이런 세상은 한가족도 포근히 안을수 있고 모든 친구를, 지구촌 모든 사람들을 한품에 안을수 있다. 이것은 둥글게 살아가는 하나의 조화로운 세계를 의미한다. 이렇듯 동그라미처럼 고운 마음을 가진 동심세계는 이처럼 아름답고 어른들의 마음도 정화시킬수 있는 넓은 세계이다. 세상이 조화롭게 되는 날이 세계의 평화가 오는 날이다. 세계의 평화도 이들의 동심세계에서부

마음에 그리는 동그라미

터 시작되는것이 아니겠는가!

어린이들의 생활을 깊이 파고드는 시인의 눈에서는 매일마다 공부에 열중하는 아이들이 글을 쓰는 종이의 간살칸도 하나의 소재로 떠오르고 시적대상이 된다. “글자들의 꽃방석”은 소재가 신선하고 시적발견이 새롭다. 이미지구사가 뛰어나다. 시작품에서 글자들은 “새싹마냥 여린 철부지친구”가 된다. 이런 친구들을 “가슴 쪽 내밀고/ 허리 쪽 펴고/ 의젓하게 앉으라고” 네모반듯한 간살칸은 글자들의 꽃방석이 된다. 지금까지 간살칸을 글자들의 꽃방석이라고 한 것은 처음 본다. 개성적시인은 남이 쓰지 않은 시어로 나만의 개성적시를 쓴다. 시인의 가장 보귀한 점은 여기에 있다.

나는 최길록시인의 동시집 《마음에 그리는 동그라미》 출간에 가장 열렬한 박수로써 축하를 드린다. 그리고 우리 글을 사랑하고 책을 애독하는 광범한 어린이들에게 이 동시집을 추천한다. 나는 이 시집이 동그란 세상이라면 매수의 동시는 작자의 고운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이 동시집을 읽으면서 어린이들은 아름다운 동시의 미적인 향수에 젖어들것이고 시에서 그려낸 동그라미 세상에서 고운 마음을 다듬을것이며 동심으로 차넘치는 꿈의 깃을 펼칠것이다.

동그란 세상, 고운 마음

아직 생활맛은 있어도 시적으로 채 영글지 못했거나 억지로 조합시켜 생경해보이는 작품들이 간혹 보이는데 이는 작자가 앞으로 시창작에서 주의할바라고 본다.

앞으로 시에 대한 끈질긴 탐구를 계속하여 더욱 훌륭한 작품집이 나올것을 작자에게 기대하면서 이만 줄필을 놓는다.

2009년 5월 25일

차례

사랑스러운 교실친구들

우산 하나 쓰고서 / 3

우리 / 4

친구야, 너를 위하여 / 6

교단 / 7

딱친구 / 8

꼭지걸이 / 11

가을 쫓는 아이 / 13

선생님의 목소리 / 15

창문우리 닮으며 / 16

눈싸움 / 19

집채무 빙글빙글 / 20

마음에 그리는 동그라미 / 23

달랑강아지 / 24

교실전등 / 26

교편대 / 27

책상과 걸상 / 28

마음에 그리는 동그라미

30 / 연기속 선생님

31 / 손수건돌리기

32 / 친구

아기자기 가족사랑

35 / 왼발과 오른발

36 / 엄마품

39 / 아빠품

40 / 엄마의 미소

43 / 잔등에 피는 꽃

44 / 웃음나무

47 / 그네터

48 / 할머니네 뜨락

51 / 할머니의 울바자

52 / 심부름대장

54 / 귀여운 박쥐

하늘나라 친구들

57 / 도시의 해님

58 / 아침해님

60 / 저녁해

61 / 해님의 숨바꼭질

62 / 해를 삼킨 기증기

노을	/ 63
하얀 구름	/ 64
달님	/ 65
하늘동물원	/ 66
삼태성	/ 68
고드름	/ 69
분수못에 내린 무지개	/ 70
바람	/ 73
소낙비	/ 74
할미꽃	/ 76
성에꽃카텐	/ 77

꽃향기, 풀향기

곰 꾸는 계절	/ 81
개암나무마을	/ 82
나무엄마	/ 85
수양버들	/ 86
가로수들의 약속	/ 88
고소한 씨앗	/ 89
아기와 꽃망을	/ 90
접시꽃	/ 93
꽃밭	/ 94
꽃입	/ 96
갈꽃	/ 97

마음에 그리는 동그라미

- 98 / 민들레
- 101 / 무얼 보았니?
- 102 / 솔방울
- 104 / 교정의 백양나무

알쏭달쏭, 싱숭생숭

- 107 / 바즐당기기
- 108 / 참새 한마리
- 111 / 어린것은
- 112 / 그림자 1
- 115 / 그림자 2
- 116 / 허수아비
- 119 / 저수지
- 120 / 제비등지
- 121 / 글자들의 꽃방석
- 122 / 가위날
- 125 / 웃지 말아
- 126 / 거지말
- 129 / 신비한 꿈얘기
- 130 / 할아버지의 기장밭
- 131 / 파문
- 132 / 8자즐뛰기
- 135 / 후기

사랑스러운

교실친구들



우산 하나 쓰고서
 우리
 친구야, 너를 위하여
 교단
 딱친구
 깍지경이
 가을 좇는 아이
 선생님의 목소리
 창문유리 닦으며
 눈싸움
 집채무 빙글빙글
 마음에 그리는 동그라미
 딸랑강아지
 교실전등
 교편대
 책상과 교상
 연기속 선생님
 손수건돌리기
 친구



우산 하나 쓰고서

우산 하나 쓰고서
집 가는 엄마와 아이
달과 별처럼 정다와

우산 하나 쓰고서
도서관 가는 두 아이
쌍둥이형제처럼 정다와

우산 하나 쓰고서
교문 나서는 선생님과 아이
산과 강물처럼 정다와

큰 하늘 짙푸짙푸
작은 하늘 찌푸찌푸